

한국어 기동동사의 사건구조

‘-어지다’류 동사를 중심으로

김윤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yoonshin@snu.ac.kr

이정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clee@snu.ac.kr

남승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nam@snu.ac.kr

The Event Structure of Korean Inchoative Verbs with reference to ‘-ecita’ verbs

Yoon-shin Kim,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onshin@snu.ac.kr

Chungmin Lee,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clee@snu.ac.kr

Seungho Nam,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nam@snu.ac.kr

요 약

기동동사는 새로운 상태나 과정의 시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어지다’류의 기동동사는 형용사나 동사의 어근에 ‘-어지다’라는 기동 보조 구성요소를 붙여 파생된다. 그런데 척도의 개념이 있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기동동사와 척도의 개념이 없는 형용사나 동사에서 파생된 기동동사는 상적으로 다르게 행동한다. 이 논문은 ‘-어지다’류의 기동동사의 사건구조를 이러한 척도의 개념을 근거로 구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의 언어에 반영된 척도라는 인지적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연구세부분야 언어학/언어처리

주제어 사건구조, 기동동사, 절대/정도 달성동사, 척도개념

1. 서 론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의 사건구조를 기준으로 상태동사(state verb), 동작동사(activity verb), 그리고 상태변화동사(change-of-state verb)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상태동사와 동작동사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단일한 사건구조를 갖는 반면, 상태변화동사는 변화 전의 국면을 나타내는 하위사건과 변화 후의 국면을 나타내는 하위사건으로 구성되는 복합사건구조를 나타낸다.

기동동사(inchoative verb)는 상태나 과정의 시작을 초래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변화동사에 속한다. 한국어의 기동동사는 단일어이거나 형용사나 동사 어근에 ‘-어지다’가

붙어 파생된다¹⁾. Lee, Chungmin(1973)은 ‘-어지다’를 기동 보조 구성요소(inchoative auxiliary formative)이며, 또한 상태변화 구성(change-of-state construction)을 구성하는 가장 생산적인 구조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파생되는 한국어 기동동사는 그 사건구조가 상적인(aspectual) 행동에서 일관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어지다’와 결합하는 형용사나 동사 어근의 특징

1) 타동사 어근과 ‘-어지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피동동사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지다’류의 동사는 단순한 피동의 의미 뿐만 아니라 주어인 대상이 새로운 국면을 시작함을 나타낸다. 이는 영어의 ‘become V-ed’에 해당한다.

에 따라 상이한 상적인 양상을 보인다. 척도 개념을 갖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어지다’류와 그렇지 않은 동사에서 파생된 ‘-어지다’부류는 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행동한다.

이 논문은 한국어 기동동사의 사건구조를 ‘-어지다’류의 동사를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우선 기동동사의 상적 행동을 살펴보고 2가지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동동사의 사건구조와 척도개념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기동동사의 상적 행동(aspectual behavior)과 유형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동동사는 변화 전의 국면과 변화 후의 국면을 하위사건으로 하는 복합사건구조를 갖는다. 복합사건구조는 보통 선행하는 과정(process)사건과 후행하는 결과상태(result state)사건으로 구성된다. 이 두 사건 중에서 어느 사건이 두드러지느냐(prominent)에 따라서 달성동사(achievement verb)와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로 구분된다.

먼저 달성동사는 하위사건 중 후행하는 결과상태의 사건이 비중을 갖는다. 따라서 달성동사는 과정을 나타내는 하위의 사건에 관계된 어미나 부가어(adjunct)와는 결합할 수 없다.

- (1) (a) 영화네 강아지가 죽었다.
- (b) 영화네 강아지가 갑자기 죽었다.
- (c) 영화네 강아지가 병이 난지 닷새만에 죽었다.
- (d) *영화네 강아지가 병이 나서 닷새동안 죽었다.
- (e) *영화네 강아지가 죽고 있다.
- (f) *영화네 강아지가 죽는다.
- (g)??영화네 강아지가 계속 죽었다.

(1g)가 허용하는 의미는 영화네 강아지가 여러 마리이며 그 강아지들이 연달아 죽고 있다는 것이다. 즉 완결된 사건이 계속 반복(repetition)됨을 의미한다.

반면, 완성동사는 선행하는 과정사건이 비중을 갖기 때문에 과정을 수식하는 부가어나 과정을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2) (a) 철수가 자기 집을 짓는다.
- (b)??철수가 세 달만에 집을 지었다.
- (c) 철수가 세 달 동안 집을 지었다.
- (d) 철수가 집을 짓고 있다.
- (e) 철수가 집을 계속 짓고 있다.

(2b)는 세 달의 기간 동안 집 짓는 일이 완료되었다고 해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세 달 동안 아무 일이 없이 있다가 세 달이 지난 후에 집 짓는 일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더 합당하다. 그리고 (2c)-(2e)는 모두 과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미완결적인(atelic) 해석이 우세하다.

그런데, 기동동사는 동일한 상적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3) (a) 이 방의 온도가 30분 동안 높아졌다.
- (b) 이 길이 3년 동안 넓어졌다.
- (c) 우리의 출발이 3시간 동안 늦어졌다.
- (4) (a) 철수가 30분 동안 없어졌다.
- (b) 그 집 창문이 30분 동안 깨졌다.
- (c) 촛불이 30분 동안 꺼졌다.

(3)의 예문들은 각각의 부사어가 나타내는 시간 동안 과정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미완결의 해석을 갖는 것이다. 물론 온도나 넓이, 그리고 출발시간이 그전 보다 그 정도가 심화되었음을 함축할 수는 있으나 이 문장의 사건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미완결적인 과정이다. 반면 (4)의 예문들은 각각의 부사어가 나타내는 시간 동안 (4a)와 (4c)의 경우와 같이 결과상태가 지속되었거나 (4b)와 같이 사건이 반복되었음을 나타내는 완결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달성동사와 같은 상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4)의 예들 뿐이고 (3)의 경우에는 완성동사와 같이 행동한다.

기동동사가 시간한도(time span)를 나타내는 '-만에' 부가어와 결합할 경우에도 이러한 일관되지 않는 상적 행동을 보인다.

- (5) (a)?? 이 방의 온도가 두 시간만에 높아졌다.
- (b) ?이 길이 3년만에 넓어졌다.
- (c) *우리의 출발이 두 시간만에 늦어졌다.
- (6) (a) 철수가 두 시간만에 없어졌다.
- (b) 그 집 창문이 두 시간만에 깨졌다.
- (c) 촛불이 두 시간만에 꺼졌다.

'-만에' 부가어는 완결 사건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약을 받지 않지만 미완결 사건과 공기하는 경우에는 제약을 받는다. 만약 (5)의 예문에 완결점을 도입하는 부가어가 나타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5') (a) 이 방의 온도가 두 시간만에 10도가 높아졌다.
- (b) 이 길이 3년만에 2배가 넓어졌다.
- (c)?? 우리의 출발이 두 시간만에 완전히 늦어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완성동사의 경우와 유사하다. 완성동사의 목적어 논항을 분류사를 사용하여 계량화(quantization)할 경우에 문장이 더욱 자연스러워진다.

- (7) (a) ?철수가 3개월만에 집을 지었다.
- (b) 철수가 3개월만에 집을 한채를 지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과정의 계속을 나타내는 '-고 있다' 어미와의 결합의 경우에도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 (8) (a) 이 방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b) 이 길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 (c) 우리의 출발이 계속 늦어졌다.
- (9) (a)?*철수가 계속 없어지고 있다.
- (b) 그 집 창문이 계속 깨지고 있다.
- (c) 촛불이 계속 꺼지고 있다.

(8), (9)의 동사들은 모두 '-어지다'류의 기동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8)에서는 과정의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 어미와의 결합이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9)의 경우에는 (a)와 같이 비문법적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b)와 (c)의 경우처럼 사건 전체의 반복(repetition)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8)의 예들은 완성동사와 같이 미완결(atelic)의 해석을 가지며, (9)의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달성동사와 같이 완결(telic)의 해석을 갖는다.

완결성과 관련하여 정도부사 '거의'와의 분포에서도 기동동사는 앞의 예들과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10) (a) *철수가 거의 걸었다.
- (b)??철수가 거의 집을 지었다.
- (11) (a) *이 방의 온도가 거의 높아졌다.
- (b) *이 길이 거의 넓어졌다.
- (c) *우리의 출발이 거의 늦어졌다.
- (12) (a) 그 옷에 얼룩이 거의 없어졌다.
- (b) 그 집 창문이 거의 깨졌다.
- (c) 촛불이 거의 꺼졌다.

'거의'는 완결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 지점에 육박하고(approximate) 있음을 나타낸다. (10)의 예문으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미완결의 사건을 나타내는 동작동사(activity verbs)나 완성동사와 '거의'는 공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완결의 해석을 갖는 (11)의 예문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완결의 해석을 갖는 (12)의 예문들에서는 제약없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여 한국어 기동동사들은 상적 행동에 따라 크게 완결 해석 뿐만 아니라 미완결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경우와 단순한 달성동사와 같이 완결 해석만을 갖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²⁾.

- (13) (a) 유형 I: 높아지다, 넓어지다, 늦어지다,
- (b) 유형 II: 없어지다, 깨지다, 꺼지다,

유형 I의 기동동사는 완성동사이며 유형 II는 달성동사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척도 개념과 관련지어 그 사건구조를 기술해 보도록 하자.

3. 척도(scale) 개념과 사건구조(event structure)

Kim, Yoon-shin, Chungmin Lee, Seungho Nam and Beom-mo Kang(1999)에 의하면 형용사에서 파생된 ‘-어지다’류의 상태변화동사를 변화의 차원(dimension)에 대한 당연논항(default argument)³⁾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 (14) (a) 이 길이 넓이가 넓어졌다.
- (b) 이 길의 너비가 넓어졌다.
- (15) (a) 우리의 출발이 시간이 늦어졌다.
- (b) 우리의 출발시간이 늦어졌다.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넓어지다’와 같은 동사는 형용사 ‘넓다’에서 파생된 ‘너비’라는 차원을 나타내는 명사를 당연논항으로 취한다. 또한, (15a)와 같이 ‘늦어지다’는 형용사 ‘늦다’에서 파생된 ‘늦기’와 같은 명사를 차원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또 (15b)와 같이 보다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이 차원명사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동사들은 모두 유형 I의 기동동사들이다.

그러나 유형 II의 기동동사들은 이러한 차원을 나타내는 당연논항을 도입할 수 없다.

- (16) (a) *철수가 없기가 없어지고 있다.
- (b)?*철수가 존재가 없어지고 있다.
- (17) (a) *촛불이 밝기가 꺼지고 있다.
- (b) *촛불의 밝기가 꺼지고 있다.

(16b)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집단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존재가 잊혀져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외의 의미로는 해석될 수 없다.

‘점점’과 같은 점진적 과정을 나타내는 부사와 공기할 경우에는 유형 I의 기동동사는 이러한 당연논항이 도입하는 차원과 관련된 변화를 나타낸다.

- (18) (a) 이 방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b) 이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 (c) 우리의 출발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 (19) (a) *철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⁴⁾
- (b) *그 집의 창문이 점점 깨지고 있다.
- (c) *촛불이 점점 꺼지고 있다.

이때 (18)의 동사들은 주어 논항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점점’은 사건진행과정의 양상을 수식해서 변화하는 과정이 조금씩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음이란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정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척도가 존

2) Dowty(1979)는 전자의 경우를 절대 달성동사(absolute achievement verbs)로, 후자의 경우를 정도 달성동사(degree achievement verbs)라고 했다.

3) Pustejovsky, James(1995)에서 논항구조를 구성하는 논항 중에서 통사적으로는 반드시 실현될 필요는 없으나 논리적, 개념적 차원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논항을 당연논항이라고 제시했다.

4) ‘없어지다’가 다음과 같이 대상논항으로 물절명사를 취할 경우 정도 달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논항의 특성상 변화의 영향이 논항의 전체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명사에 의해 제시된 척도에 따라 그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a) 돈이 계속 없어졌다
- (b) 돈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재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19)의 동사들은 모두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상태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과정의 진행양상을 나타내는 부사와는 나타날 수 없다. 또한 '점점'과 나타날 수 없음은 척도 개념을 염두에 둔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또한 정도의 심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부사 '더욱'도 유형 I의 기동동사와는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유형 II의 기동동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20) (a) 이 방의 온도가 더욱 높아졌다.
 (b) 이 길이 더욱 넓어졌다.
 (c) 우리의 출발이 더욱 늦어졌다.
 (21) (a) *철수가 더욱 없어졌다.
 (b) *그 집의 창문이 더욱 깨졌다.
 (c) *촛불이 더욱 꺼졌다.

정도의 심화는 어떤 척도 상의 값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척도개념 상의 비교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20)의 예문들의 경우에는 그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온도의 정도가, 길의 넓이가, 출발의 시간이 그 변화의 진행의 정도가 어떤 척도 상의 값에서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즉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척도에 의존하여 계량화(quantization)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21)의 예문들의 경우에는 계량화한다면 사건 전체의 반복을 의미할 뿐 진행의 정도를 나타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유형 I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정도의 완성을 나타내는 정도 완성동사(degree accomplishment)라고 할 수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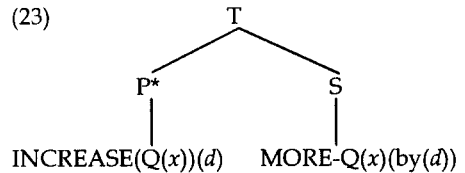
이러한 정도의 완성을 나타내는 사건을 Hay, Jen, Chris Kennedy and Beth Levin(1999)는 다음과 표시한다.

- (22) (a) INCREASE(Q(x))(d)

5) Dowty(1979)는 이러한 유형 I의 동사를 정도 달성동사(degree achievement verbs)라고 하고 전형적인 달성동사인 유형 II의 동사를 절대 달성동사(absolute achievement verbs)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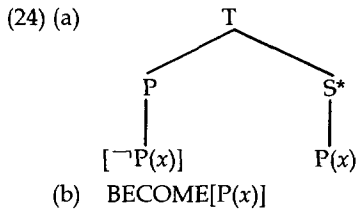
- (b) DECREASE(Q(x))(d)

x 는 변화의 자질이고, Q 는 x 의 형용사와 관계된 자질로 바꾸어 주는 함수이며 d 는 차이값(difference value)이다. 또한 함수 Q 에 의해 도입되는 것은 차원과 관련된 '높이, 길이, 너비, 시간' 등의 자질이므로 Q 는 척도의 차원을 도입하는 당연논항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화는 정도 달성동사의 상적 자질은 형용사의 척도자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Pustejovsky, James(1991)의 사건구조의 도식과 관련지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도 완성동사는 일반적인 완성동사와 마찬가지로 과정과 결과상태가 연속되는 복합사건이고 후행하는 결과상태에 비중이 가게 된다. 선행하는 사건은 척도상의 값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고 또한 그 사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과정을 수식하는 부가어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변화의 완결점을 나타내는 부가어가 나타나면 척도 상의 증가가 완결되고 그 상태가 최종의 상태로 결정된다. 이때 후행하는 결과상태의 사건으로 그 비중이 옮겨지게 된다.

반면에 '없어지다', '깨지다', '꺼지다' 등은 척도 개념이 없는 형용사나 동사에서 파생된 기동동사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속성이 척도 상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변화 후에 절대적인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 달성동사의 사건구조는 변화 전의 상태와 그 상태의 상실로 초래되는 변화 후의 사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절대 달성동사의 사건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동동사는 모두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변화 전의 국면과 변화 후의 국면으로 구성되는 복합사건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어지다'류의 기동동사는 그 상적인 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용사나 동사에서 파생되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상적 행동을 나타낸다.

척도개념이 있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기동동사는 변화전의 국면과 변화 후의 국면이 절대적인 속성을 전환이 아니라 동사 자체가 내포하는 관련 형용사의 척도 상에서의 상대적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동동사는 정도 완성동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척도개념이 없는 형용사나 동사에서 파생된 기동동사는 변화 전과 변화 후의 상태가 서로 부정의 관계이므로 변화 후에 대상은 변화된 절대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동사의 또 다른 차이점은 '과정+상태'의 순서로 이루어진 복합사건에서 그 비중(head)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도 완성동사는 선행하는 과정사건에 비중이 있는 반면 달성동사로 나타나는 기동동사는 그 비중이 후행하는 결과상태의 사건에 놓이게 된다.

4. 결 론

이상으로 한국어의 기동동사의 사건구조를 살펴보았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동동사가 나타내는 변화의 양상이 그 동사와 관련된 척도의 개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척도 상에 존재하는 속성들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척도라는 연속되는 기준을 근거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시간의 차

원에서 실현되었을 때 변화의 양상을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반면 연속적인 척도와 관련이 없는 속성은 변화라는 사건을 통해 시간의 차원에서 순간적이고 절대적인 변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척도개념이 기동동사와 같은 상태 변화동사에 시간적으로 실현된다. 이것은 척도와 같은 인지적인 요소가 기동동사와 같은 언어표현의 속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논문은 주로 형용사와 타동사에서 파생된 '-어지다'류의 동사의 사건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순수한 자동사로 실현되는 기동동사인 '식다, 녹다' 등에도 확대되어야 하며, 또한 사동사와 관계가 있는 '채워지다' 등의 동사와도 사건구조의 연관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앞으로의 연구는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시간과 사건의 양태에 대한 설명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윤신,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1999), 한국어 피동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실현, 한국 인지과학회 1999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2] 이정민(1976), Case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 [3] 이정민(1982), Aspects of Aspect in Korean, 「언어」 7-2, 한국언어학회.
- [4] 이정민·강범모·남승호(1998), '한국어 술어의 어휘의미에 대한 생성적 연구방법', 「인지과학」 제 9권 제3호, 한국인지과학회.
- [5]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6] Hay, Jen, Chris Kennedy and Beth Levin (1999), Scalar Structure Underlies Telicity in Degree Achievements, *SALT* 9.
- [7] Jackendoff, Ray (1972), *Semantic*

-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The MIT Press.
- [8] Kennedy, Chris and Louise McNally (1999), From Event Scales to Adjectival Scales: Degree Modification in Deverbal Adjectives, *SALT 9*.
- [9] Kim, Yoon-shin, Chungmin Lee, Seungho Nam and Beom-mo Kang (1999), The change-of-state verbs derived from adjectives in Korean, *Proceed'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Tokyo.
- [10] Lee, Chungmin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11] Lee, Chungmin, Beom-mo. Kang, Seungho Nam and Yoon-shin Kim (forthcoming), Semantic Underspecification and Case Alternations with Verbs of Transitive Motion in Korean. (presented in TLS 99 Conference)
- [12] Pustejovsky, James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in Levin, B. and S. Pinker (eds.) *Lexical & Conceptual Semantics*, Cambridge & Oxford: Blackwell.
- [13] Pustejovsky, James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14] Tenny, Carol L. (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15] Vendler, Z. (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